

## 자동차

### 현대/기아차, 미국 판매/점유율 상승 지속

**자동차/부품/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 6098-6690  
Joonsung.kim@meritz.co.kr

**4월 미국 산업수요 133만대 (-2% YoY, 이하 YoY), SAAR 1,641만대 (-5%)**

미국 산업수요는 19년들어 네 달 연속 YoY 감소 기록 (1월 -1%, 2월 -3%, 3월 -3%)했으며, 전월 1,742만대로 호전됐던 SAAR 또한 1,700만대 이하로 축소됐다. 성숙된 수요환경 속 소비심리/ 실업률 호조 지속과 같은 긍정요인보다는 높은 수준의 대출금리 유지 (Auto loan rates 4개월 연속 6% 이상 유지, 19년 4월 6.28% vs. 18년 4월 5.58%)와 같은 부담요인의 영향이 커진 상황으로 판단된다.

특이점은 일본업체의 판매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동안 Toyota는 9개월, Honda는 5개월, Nissan은 7개월 YoY 판매감소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Toyota는 4개월 연속 YoY 판매감소를 기록 중이며, 이 같은 부진이 비우호적 환율 및 모델 노후화 등에 따른 결과라고 판단한다.

**현대차 5.7만대 (+2.1%), 판매점유율 4.3% (+0.2%p), 인센티브 \$2,447 (-11.2%)**

제네시스 판매회복 (+56%)과 SUV 판매호조 (+7%)에 힘입어, 9개월 연속 YoY 소매판매 증가, 5개월 연속 YoY 점유율 상승, 8개월 연속 YoY 인센티브 감소를 기록했다.

신차 출시 앞둔 쏘나타 (8,634대, -10%)가 감소했으나, 코나 (5,154대, +56%), 싼타페 (10,746, +14%) 등 신형 SUV 판매 호조가 전체 판매증가를 견인했다. 기대를 모으고 있는 쉐레세이드 국내공장 수출선적은 5월 시작한다.

**기아차 5.1만대 (+1.6%), 판매점유율 3.9% (+0.1%p), 인센티브 \$3,396 (-10.0%)**

쏘울, 텔루라이드와 같은 신형 SUV 판매호조로 7개월 연속 YoY 소매판매 증가, 9개월 연속 YoY 점유율 개선, 6개월 연속 YoY 인센티브 감소 기록.

니로 (1,839대, -21%), 스포티지 6,077대 (-21%), 쏘렌토 7,473대 (-16%) 기존 SUV 판매 부진했으나, 신형 Soul (10,431대, +18%), 텔루라이드 (5,570대, 2월 투입) 등 신규 SUV 판매호조가 전체 판매성장 견인했다.

현대차 · 기아차의 SUV 신차효과는 19년 중 지속될 전망이며, 양사가 기록 중인 YoY 판매 및 점유율 개선 추이 또한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9년 5월 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중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9년 5월 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9년 5월 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준성)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